

# 곡성심진강천문대 새롭게 탈바꿈 한다

## 전시 체험관 신축·콘텐츠 보강 예정

곡성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추진한 '2019년 지역 과학관 전시 개선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시 개선 지원 공모사업은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과학관을 대상으로 전시 콘텐츠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심진강천문대는 2007년 개관 후 지금까지 천문 과학문화 대중화에 노력했다. 매년 2만 여명이 방문하며 많은 방문객이 잊지 못할 밤하늘의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개관한 지 12년이 지나면서 전시시설과 체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전라남도와 협력해 과기부에 지역과학관 전시개선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과기부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전시 개선 지원 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리고 곡성군은 오랫동안 구상하고 준비한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 공모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곡성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총 사업비 15억(국비 5억, 지방비 10억)으로 천문대 전시체험관 신축 및 콘텐츠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전시체험관에는 4D와 VR 기술이 융합된 기기가 들어서 방문객들에게 천체활동에 대한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체험 전시물 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해 방문객의 천문우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곡성심진강천문대를 획기적인 변화시켜 방문객에서 더 큰 추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양시, '우리동네 공원걷기 및 밸런스워킹 PT' 큰 호응

## 웰빙우산테마공원·마동저수지생태공원 야간 운영



광양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공원걷기 및 밸런스워킹 PT'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밸런스워킹 PT'는 밸런스워킹 테스트를 통해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근력·유산소운동, 파워워킹 등 전신을 이용한 복합운동으로 단시간에 최고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더욱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야간시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공원걷기 및 밸런스워킹 PT'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기초체력 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광양시 웰빙우산테마공원에서 매주 월요일, 마동저수지생태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19:30~20:30 걷기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항 건강증진팀장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밸런스워킹 운동교실'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스트레싱 해소는 물론 비만예방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무더위 날리자'...여수시, 바닥분수 본격 가동

## 총 7개 운영·쿨링포그도 마련...시민 편의 제고



여수시가 폭염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도시공원에 있는 바닥분수와 쿨링포그(물안개 분사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바닥분수는 이순신 광장, 이순신 공원, 웅천해변 문화공원, 죽립 근린공원, 오동도, 동동공원, 마평공원에 설치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30분 가동 20분 중단을 반복한다.

쿨링포그는 이순신광장과 성산공원, 기복산공원에 마련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5분 가동 후 1분 정지한다.

시 관계자는 "바닥분수와 쿨링포그가 설치된 공원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수질 점검과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4억 6000만 원을 들여 바닥분수 2개소와 쿨링포그 3개소를 신설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개최

여름철 대표과일 복숭아의 고장 순천시 월등면에서 '제16회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월등면행정복지센터 잔디광장과 월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월등복숭아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양질의 토양, 충분한 일조량, 높은 일교차로 다른 지역 복숭아에 비해 맛과 당도가 월등해 순천을 대표하는 과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더욱 당도 높은 신품종 복숭아로 품종을 갱신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3일 오전 10시부터 복사골 노래자랑 예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품행사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오후 6시

부터는 개막식과 전국규모로 확대된 MBC가야게스트 축하공연(초대 가수 18명)이 월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는 복숭아 칼질, 병조림, 복숭아 당도맞추기, 수확체험, 삼행시짓기 등 복숭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현지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복숭아 직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의병의 고장 보성, 일본제품 불매 선언



의병의 고장 보성군 곳곳에 1일 아침 '일본제품 불매 현수막 100여 개가 동시에 걸려 진풍경을 연출했다. 각종 사회단체 및 읍면이 나서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불매운동을 선언한 단체만 100여개며 지속적으로 동참을 선언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오는 7일에는 호남에서 가장 먼저 3.1만세운동이 펼쳐졌던 벌교읍 일대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결의를 다지는 시가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보성 군수는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를 선언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의 일종이었

던 물산장려운동과 그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며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의병 보성에서 21세기판 경제 독립 운동이 다시 일망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을 선언한 한 사회단체 회장은 "많은 보성의 선조들이 의병으로 민족과 이웃을 위해 전진터로 나갔다면, 이제는 후손들이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차례라 생각해 불매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보성군은 남도의병의 중심지로 해상의병거점이자, 전라좌의병이 창요한 곳이기도 하다. 주요 인물로는 죽전 박광전, 삼도 임계영, 우산 안방준, 모의장군 최대성, 어모장군 전방삭, 소의장군, 담살이 의병장 안규홍, 홍암 나철, 송재 서재필 등 수많은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 고흥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7명 선정

고흥군은 청년 창업자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자 7명을 최종 선정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지난 6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고 총 13명의 예비·초기 창업 청년이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 사업추진 적합성 등을 검토하였고, 2차 사업평가 심의회에서 대면심사 방식으로 사업 추진 의지와 실현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초기창업자 5명, 예비창업자 2명 등 총 7명의 청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 구례군, 퓨전 비보이 공연 성료

구례군은 지난달 31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비보이, 한국의 멋을 그리다 (Show Passion Korea)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구례군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공연으로, 구례문화예술회관 객석은 물론이고 통로

까지 모두 매우는 등 많은 군민들이 함께 했다.

특히 관객들은 60분의 공연 시간 내내 박수를 치고 열렬히 호응을 하는 등 수준 높은 무대매너를 보여주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공연팀인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 팀 '퓨전엔씨'는 한국 고유의 멋을

박진감 넘치는 비보이와 적절히 결합하여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쳐 마지막 무대까지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멋진 공연이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